

세상은 지금...

사진으로 보는 뉴스

출처: 신화넷

'한어교' 세계중국어대회 한국 예선전 서울서



2025년 '한어교' (汉语桥) 세계중국어대회 한국 예선전이 24일 서울에서 열렸다. 치열한 접전 끝에 다섯명의 우승자가 한국 대표로 중국에서 열리는 결승전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다.

한국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를 격차 축소



5월 12일,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가운데)가 서울에서 대선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한국 사회여론연구소가 5월 2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이 대선 지지를 47.3%로 1위, 김문수가 39.6%로 2위를 차지해 격차가 지난주의 12.8% 포인트에서 7.7% 포인트로 줄었다.

일본 쌀값 고공행진, 저가 비축미 투입 약속



5월 21일, 고객이 도교의 한 슈퍼마켓에서 쌀을 고르고 있다. 새로 취임한 일본 농림수산상 고이즈미 신지로는 5월 24일, 정부는 비축미를 이전처럼 중개상에게 경매하는 것이 아니라 5키로짜리 쌀 한포대를 2,000엔(인민폐로 약 101원)에 직접 소매상에게 판매해 쌀값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면적 75% 장악 계획



5월 23일, 가자지구 중부 브레이저난민영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군은 가자지구에 대해 새로운 군사작전을 펼쳐 앞으로 두달 동안 가자지구 면적의 75%를 통제하고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약 200만명을 이 지역으로 집중 이주시킬 계획이다.

중국-월남 국제여객열차 5년 만에 운행 재개



남녕역에서 월남 하노이로 달리는 열차 (5월 25일 찍음). 5월 25일, T8701 편 열차가 남녕역에서 하노이로 향했다. 이는 5년 만에 중국-월남 국제연합운수여객열차 운행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

프랑스·영국·캐나다, 이스라엘 군사행동 비판



5월 21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제발리에 난민영지역을 공습한 후 한 남자가 부상당한 어린이를 안고 구조를 요청하고 있다. 프랑스, 영국, 캐나다는 5월 19일 공동성명을 발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행동 확대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이스라엘측이 여전히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세 나라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감원... 머스크 정치 관여 감소 암시



5월 23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탑승을 위해 남쪽 잔디밭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는 수백명에서 수십명으로 줄일 계획이며 기능도 중대하게 '강등'할 것이라고 밝혔다. 5월 24일, 소셜미디어 X 소유자 머스크는 트럼프정부내 업무를 줄일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아세안 자유무역구 3.0 버전 협상 완료



5월 22일,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전문가들이 중국-아세안 위성원격감지응용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5월 20일, 중국-아세안 재무장관회의에서 양측 재무장관은 중국-아세안 자유무역구 3.0 버전(版)에 관한 협상을 전면 마무리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이는 쌍방이 공동으로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심화하는 상징적인 성과이다.

올해 미국 입국 국제관광객 8.7% 감소 예상



뉴욕 시대광장 중앙거리. 영국관광경제화학회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정부의 관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2025년 미국 국제 입국자수가 8.7% 감소할 전망이다 가운데 특히 캐나다, 메히코 및 서유럽 국가의 국제관광객수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칸네스국제영화제서 《광야시대》 특별상



칸네스국제영화제 레드카펫에 등장한 중국 영화 《광야시대》의 주역들. 제 78회 칸네스국제영화제가 5월 24일 저녁 프랑스 칸네스에서 폐막됐다. 중국 감독 필림이 연출한 《광야시대》가 칸네스국제영화제 특별상을 수상했다.